

전력기술인 및 회원께 드리는 글

전력기술인 및 회원 여러분!

전력기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력기술관리법이 탄생되어 우리 전력기술자만이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계·기능계 자격취득자뿐 아니라,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를 망라한 협회의 설립으로,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관리와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상산업부(전 동력자원부)에서 25년간 공직에 몸담아 있다가 부기감(부이사관)으로 퇴직한 후, '92년 10월부터 3년 반동안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당 협회 관리이사로 부임한 오재현입니다. 우선 지면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전력기술인 및 회원 여러분!

그간 우리는 힘이 연약한 관계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권익에 관한 사항이 도마위에 오르곤



오 재 현
관리이사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995년초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추진한 전기안전관리 의무고용제 폐지안이 그러하였고, 지난해 말부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란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기업활동 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그러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전력기술인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우리 전력기술인의 마음을 줄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특하면 단골 메뉴로 의무고용제 완화를 들고 나오곤 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 전력기술인의 권익을 지켜온 것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전기기사협회가 있었기 때문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이제는 전력기술인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아니 전력기술인의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은 뭉쳐야 하고, 협회는 여러분의 구심점이 되어 전력기술인의 힘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력기술인들은 한편으로는 의무고용제 폐지를 막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업을 창출하는데 진력하여야 합니다.

의무고용제가 완화되서는 아니되겠지만, 설령 의무고용제가 완화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다음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상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노력하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뒷짐만 쥐고 계시면서 “누군가가 하겠지”하면서 방관만 하고 계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강건너 불을 보듯 뻔할 것

입니다. 협회의 주인은 직원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입니다. 직원은 하나의 머슴에 불과합니다. 협회의 운명은 전력기술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협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함은 물론,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협회의 발전과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권익 향상에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 임직원은 협회 발전을 위하여 신명을 받쳐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협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월말 현재로 협회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80명(본부 45명, 지부 35명)이나 아직도 직원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서 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에 많은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는 사무장이 미배치돼 업무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어서 전력기술인 및 회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마음같아선, 당장이라도 모자라는 직원을 즉시 채용하여 배치하고 싶지만, 무턱대고 직원을 채용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협회 사무실 또한 그렇습니다. 협회(본부)사무실에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하신 적이 있는 회원들께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협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여 제대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도 편히 앉아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해가며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협회의 현실이기에 모두들 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인 및 회원 여러분!

협회가 여러분들이 납부하고 계시는 회비를 헛되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납부하시는 회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음을 물론,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비, 정보의 전달매체인 협회지의 발간비, 전력기술인의 경력관리를 위한 전산운영비와 기타 본부 및 지부의 운영관리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확보되는 대로 전력기술인 및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원실의 설치, 모자라는 직원보충, 미배치된 지부의 사무장 배치와 당장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을 최대한 통제하고 절약하여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력기술인이 편안하게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연수원 건립 기금과 회관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다소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저희 협회는 새로이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다행히도 대한전기기사협회로부터 약 20여억원의 재산을 승계받아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협회가 발전할 때 전력기술인이나 회원 여러분이 더불어 발전하고 권익이 신장된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구분 및 납부금액

구 분	자 격	금 액	
		가 입 비	연 회 비
직무회원	• 설계업자·감리업자와 그 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 • 공사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120,000	120,000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120,000	150,000
일반회원	• 직무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전력기술인증 전기분야 기사 2급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80,000	80,000
준 회원	• 직무회원 및 일반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및 학·경력자	60,000	60,000

2. 회원 가입절차

본부 또는 해당 관할 지부를 방문하여 가입원서와 회비(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부 회원과(☎ 561-3492)나 해당 관할지부(p80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7. 3.

관리이사 오 재 현 드림

회원관리실 주요업무 실적

○ 회원가입 현황

[단위 : 명]

구분 \ 월	계	'96. 12	'97. 1
직무회원	1,676	554	1,122
일반회원	139	28	111
준 회원	120	72	48
계	1,935	654	1,281

○ 회비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96. 12	'97. 1
금 액	663,740	267,740	396,000

○ 경력등록 현황('96. 12. 9~'97. 2. 28)

[단위 : 건수]

수 청 발 급		설 계 사 면 허 증	경 력 확 인 서		보 유 확 인 서		총 계
경력수첩	감리원수첩		경력기술인	감 리 원	전력기술인	감 리 원	
3,070	3,408	1,458	443	437	64	95	8,975

1. 회원बाट지 지급 안내

협회 ատ지가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1997. 3. 15 이 후부터 본부 및 해당지부에서 새로이 제작된 협회 ատ지를 지급하오니 수령바랍니다.

2. 회원번호 체계 변경

- ▷ 변경사유 : 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에 따른 회원관리 변경으로 인한 전산 프로그램 개편
- ▷ 변경일자 : 1997년 2월 21일
- ▷ 변경대상 : 기존 및 신규 가입한 전 회원
- * 변경된 회원번호는 3월호 협회지 수신인 주소 상단 및 회비 지로통지서에 표기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1월 가입 신규회원 명단 게재 연기

회원관리 전산프로그램 개편과 회원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1·2월 신규가입회원 명단을 통합하여 4월호 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4. 구인·구직 접수 및 상담 안내

● 구인 안내

- ▷ 대 상 : 전력기술인 채용을 원하는 업체(감리 및 설계업체, 기타)
- ▷ 접수방법 : 구인신청서 제출(FAX 또는 전화접수 가능)
- ▷ 접 수 : 본부 회원과 또는 해당지부

● 구직 안내

- ▷ 대상 :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전력기술인
- ▷ 접수방법 : 구직신청서 및 이력서 제출(FAX 또는 전화접수 가능)
- ▷ 접 수 : 본부 회원과 또는 해당지부
- *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본부 회원과 또는 해당지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TEL : 02)561 - 3492

☎ FAX : 02)561 - 1574